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印刷：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소헌공원(昭憲公園) 명명식(命名式)거행



▲소헌공원(昭憲公園) 준공식 축사(대중회 宜洛 회장)를 대독하는 相和 상임부회장



▲소헌공원(昭憲公園) 준공 축하 애드벌룬(대중회 찬조) - 경축/소헌공원 준공/청송심씨대중회

2011년 9월 30일 300여명의 청송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소헌공원 명명식이 거행되었다.

심문의 관향(貫鄕), 청송군 청송읍에 소재한 찬경루의 공원 명칭이 우리 심문의 자손이신 세종대왕비 [5세조 안효공(淮)의 장녀]의 시호(諡號)인 '소헌(昭憲)'을 따서 소헌공원(昭憲公園)으로 명명된 것은 우리 심문의 크나큰 영광이다.

우리는 찬경루를 보면서 소헌왕후의 효심을 바라 볼 수 있었으며, 이날 소헌

공원 명명식 행사는 우리 현지 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포(祝砲)와 함께 대중회에서 찬조한 '경축·소헌공원 준공·청송심씨대중회'란 애드벌룬이 찬경루와 어우러져 마치 우리 심문의 축제인듯 하였으며, 상화 상임부회장께서는 의락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였고 한동수 군수님과 함께 소헌공원 준공식 기념식수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 대중회에서는 상화 상임부회장, 재열 감사, 재근 총무이사, 재서 문화이사가 참석하였다.

祝辭

오늘 참으로 경사스러운 소헌공원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찬경루는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비 이신 소헌왕후께서 청송군에 모셔져 있는 시조님을 위하여 지으신 제각입니다.

그동안 한동수 군수께서는 운봉관과 찬경루 등 유교문화권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어 중수·복원하심으로써 창건시의 웅대한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니

청사(淸史)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이름이 소헌공원으로 명명(命名)됨으로써 저희 심문의 크나큰 광영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송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한동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9월 30일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 의 락

제5회 지방순회 뿌리교육 실시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우고 종인들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2011년도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부산에서 부산총회(회장 심상균) 후원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 일시 : 2011년 10월 29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 부산 부산진경찰서 직무교육장
- 참석 : 울산총회장님 외 150여명
- 강사 및 강의(교육내용)
 - 심재열(대중회 감사) : 현조사적
 - 심재근(대중회 총무이사) : 대중회 소개 및 인터넷족보
 - 심재서(재무/문화이사) : 대중회 홈페이지
 - 심일진(전 해운대경찰서장) : 충효 사상 특강

금번 뿌리교육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부산총회 상군 회장님, 영민 총무님, 철보 사무국

장님, 부산진경찰서 태섭 경무과장님과 재열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문화부 -

-뿌리교육을 다녀와서-

대중회에서 실시하는 제5회 지방총회 뿌리교육이 2011. 10. 29(토) 오전 10:00~15:00까지 부산 소재 부산진경찰서 7층 강당에서 많은분들의 참석하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우리 청송심씨의 뿌리 및 선조들의 업적과 우리 후손들의 마음가짐 등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러 친척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대중회 및 관계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중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에 올린 글>
작성자 : 바람에 나라



▲심재열 대중회 감사님께서 현조사적 강의 장면



▲ 제5회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후원하신 부산총회 상군 회장님의 인사 장면



▲부산지역의 많은 참석 일가분들의 교육수강 장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심일진 전 해운대경찰서장님의 충효사상 특강 장면

회장단회의 개최

■ 2011년 11월 28일 오전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 개최

- 참석자 : (회장) 의탁 (부회장) 갑보, 상은, 경주, 상욱, 찬구, 상화, 완구 (감사) 재면, 춘식, 재열 총 11명
 이날 회의는 회장 인사에 이어 총무이사의 前 회의록 낭독, 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議案中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의 안	결 과
1	중보편집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일부 수정 후 가결
2	중보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
3	심문 뺏지 (청색칼라 제작 보급)	부결
4	이사임명 추인의 건	가결
5	부회장 사임과 후임자 선임의 건	1) 경주 부회장 사임 2) 경주 부회장 고문 추대 3) (신임부회장) 相德 안효공종회장 선임
6	(기타토의) 청보회 중보작업 용역	회장에게 일임



▲회장단 회의장면

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회 규약

제1조 (명칭과 사무실)

본 위원회는「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청송심씨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편집위원회는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위원들의 편집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유익하고 수준 높은 종보 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위촉 및 위원회구성)

- ① 위원회의 고문과 회장은 대종회 회장이 회장단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대종회 문화이사(중보편집인)로 한다.
- ②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은 파종회와 지역종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종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무)

- ① 종보발행의 발전 방안제시
- ② 종보원고 작성 및 송고
- ③ 기타 종보 발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대종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만료 시 차기 대종회 회장이 신규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연2회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 (의사결정)

의결은 다수결에 의하며 가·부 同數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8조 (예우)

편집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원고료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

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종보발간)

- ① 발간경비는 청송심씨대종회, 종인, 파종회, 지역종회의 성금으로 한다.
- ② 연6회 홀수 月末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발간한다.
- ③ 종보는 청송심씨 종인에게 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구독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종보의 원고)

- ① 원고의 투고는 청송심씨 모든 종인이 할수있으며 필요시 외손, 사위 等도 참여할 수 있다.
- ② 원고의 내용은 선조의 업적 홍보 및 발굴,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효 사상 고취, 종인의 친목 증대, 종인의 교양 함양, 종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투고를 할 수 있다.
- ③ 종보의 발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 종교,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 (광고란 활용) 광고란 활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파종회나 지역종회의 추천을 받아 광고란을 이용하여 사업이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을 선전 할 수 있다.
- ② 이를 활용할 때에는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이때의 수익금은 종보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본 위원회의 규정개정이 필요시 대종회 회장단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대동세보(경진보)와 수권속편 할인 보급안내



구 분	종전가격	할인가격	신청부수
대동세보 경진보 1질 (12권)	220,000원	150,000원	()질
대동세보 수권 1권	40,000원	20,000원	()권
수권 속편 1질(6종포함)	100,000원	50,000원	()질
수권속편 1질	수권속편 1권	50,000원	20,000원 ()권
	청송심씨세고선(선조시집) 1권	30,000원	20,000원 ()권
	중보축쇄판 1권	20,000원	10,000원 ()권
	제향홀기(휴대용)	3,000원	3,000원 ()권
	중사수첩(휴대용)	3,000원	3,000원 ()권
뺏지 1개	1,000원	1,000원 ()개	

대종회에서 발간한 大同世譜(庚辰譜)와 首卷續編을 대폭할인 하여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급하고자 하오니 一家여러분께 널리 알려주시고 이 기회에 1질씩 모시기 바랍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핸 드 폰
주 소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청송심씨대종회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17-001831(청송심씨대종회)

일본종회장(廣燮) 대종회 방문



심광섭 일본종회장

2011년 11월 2일 일본종회장인 광섭(廣燮)회장님께서 의락(宜洛)회장님을 방문하여 종회 발전과 의락회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장학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 후 종보찬조금으로 1백만원을 헌성하여 주시었다.

오래되고 규모가 제일 큰 한국음식점 「명월관」을 경영하고 계시며, 일본에서는 한국음식의 대표 레스토랑으로 신문,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에서 자주 소개되어 일본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이것은 광섭회장의 고객서비스 경영 철학과 한국음식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종사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40대 젊었을 때부터 종사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으로 7~80년대 대종

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으며, 현재에도 일본종회 회장직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훌륭한 분으로 종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일본종회 발전은 물론 대종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바쁘신 중에도 대종회를 방문하여 주신대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석식을 나누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 (좌측 : 宜洛회장, 가운데 : 廣燮 일본종회장, 우측 : 相和 상임부회장, 배석 : 총무이사, 재무이사)



▲廣燮 일본종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동경의 한국 레스토랑인 「명월관」 전경

沈영감 심민섭



심의락 회장님의 장학회 구상 소식에 감격!



심의두 지도위원

결실의 계절을 지나 거두는 시기를 맞아 존경하는 의락 회장님께서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머리 숙여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장학사업은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단돈 10만원의 장학금이나 사전하 나만 주어도 청소년들이 기뻐 날 뛰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삶의 보람을 얻는 새로운 기(氣)가 졸업식 마당에 충전하는 분위기를 봅니다.

이를 보면서 청소년들에게 사기진작과 학문의 열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많은 학교나 각 종교단체 각 종회 등에서 장학사업이 요동치는 오늘날, 우리 종회에서도 회장님께서 손수 우리 심문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선언하셨으니 기쁘고 자랑스럽고 우리 문중이 새삼 활기가 넘쳐흐름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장학사업은 무엇보다 학문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고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성을 지니고 내 것을 사회에 봉사하는 사업으로 덕을 실행하는 가장 숭고한 사업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자가 학업을 포기하여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학업을 중단 없이 학업을 마치도록 도와 주어 나라의 위

대한 동량으로 기르는 일, 또한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장학금을 주어 사기를 높여 주어 보다 큰 인물로 기르는 일 등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미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장학 사업은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정점에서 있는 사람만이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많이 함으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 때 나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삶이었구나 새삼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일들을 심회장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몸소 형제·사촌·가까운 친지들에게 실천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심문을 위한 장학 사업을 계획하신 회장님께 찬사와 축하를 드리고 다 같이 뜻을 모아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숭고한 뜻을 우리종인들께서는 많은 종인들께 전파하여 이 사업은 단순히 회장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심문의 인재를 키우는 주춧돌로 태어났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이 자손만대에 계승되어 길이 남고 빛나는 사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는 장학 사업이 최

종확정 되어져서 이 사업이 우리 심문에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 심문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 되기를 축원하며, 회장님의 만수무강을 빌

면서 다시 한 번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2011. 11. 5.
회산중학교 재단 이사장

"안효공종회에서 알립니다."

略하옵고, 5세조이신 安孝公(諱 : 濫) 後孫의 지역별, 파종별 현황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다음 양식에 의거 금년 중에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처 : 청송심씨안효공파종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86-3 안효회관 5층 / 우편번호 : 442-880
- 연락처 : (031)253-8060 / FAX (031)254-8066

- 다 음 -

地域別·派宗別 小宗會 現況

① 명 칭					
① 계 보	6世		11世		世
③ 종회 구성일	년 월 일		회원 수	명	
④ 사무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				
④ 주요기구	명 칭	이사회의	구성원 수	명	
	명 칭		구성원 수	명	
⑥ 회장 성명			전 화		
총무성명			전 화		
재무성명			전 화		
중중등록번호					
⑦ 기 타	※ 작성요령 ① 해당종회의 명칭을 기입한다. ② 안효공의 세 아드님중 6세의 휘와, 11세의 휘를 기록하며, 해당 종회선조의 세와 휘·야호를 기록한다. ③ 종회의 구성일과 종원수를 기록한다. ④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록한다. ⑤ 이사회의 등 명칭과 인원수를 기록한다. ⑥ 주요인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를 기록한다. ⑦ 해당종회와 관련된 참고내용을 기록한다.				

세대 간의 갈등과 해법에 대한 작은 제언



沈相烈
(사)한국전자지역연구원 원장
광운대학교 교수

요즘 대학생인 큰딸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만화로 된 '조선왕조실록' 시리즈를 함께 읽고 있다. 조선시대 개국 초기를 비롯하여 역사적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청송심씨 선조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동안 몰랐던 선조들의 다양한 행적을 발견하는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좌표에 대해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아울러 역사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무대와 등장인물들은 다르지만, 변화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왕과 신하, 훈구파와 사림파, 양반과 상민 간의 도전과 갈등이라는 역사의 드라마는 그 내용이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문의 성쇠가 결정되었다. 선조들에 대해 자부심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최근 지역, 계층, 성별 간의 갈등에 더해 세

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장년층인 5060세대와 청년층인 2030세대 간에는 소통이 거의 두절되어 있다. 정보를 얻는 소스가 전혀 다르다. 한 집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 간의 견해가 전혀 다르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5060세대들은 아침에 비교적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몇몇 영향력 있는 신문을 읽고, 저녁에 비슷한 3개 방송사를 통해 뉴스를 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에 의견을 피력한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가족과 회사,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인내와 희생을 감수한다.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의라고 여기고, 제사 또한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투명하고 상호호혜적인 대북 지원과 통일 방안을 선호한다.

반면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 온 2030대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수없이 많은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때로는 유언비어에 가까운 부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통해 '끼리끼리' 토막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극단적인 의견이 점점 득세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고 감성적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자신의 행복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혼전순결은 선택이며, 제사 또한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선택 가능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해서도 관념적, 이상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층은 부모 세대의 절대적 빈곤과 급속한 경제발전과는 다른 아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정작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침체와 불안한 미래 앞에서 있다.

한편 40대는 2030과 5060세대 사이에 긴 샌드위치로서, 나라의 허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40대도 점차 SNS를 통하여 2030세대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이렇듯 각 세대마다 성장 배경과 현재 처한 위치가 다르고, 서로 다른 소스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 '이념의 벽'이 점점 두터워지고 사상적으로 다른 문화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단순한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적과의 동침'과도 같은 상황이 되었다. 이들 간의 대화의 창이 열리지 않는 한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원래 어른들은 보수적이고 젊은이들은 개방적이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늙으면 보수적이 된다는, 까마득한 이집트 비문에

도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운운하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공유한 동년배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층이 나이 든다고 해도 현재의 중장년층과는 완전히 다른 기성세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듯 역사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정불변한 것은 매우 드물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으며, 말세라고 느낄 그 무언가를 말세를 관통해 다음 세상에서도 융성할 것이다.

따라서 중용적인 태도와 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반대쪽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절실하다. 정보가 쏟아지고 온갖 주장이 난무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하여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다양한 인생경험을 한 중장년층이 아직은 미완성인 청년층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접근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가을 큰딸과 함께 만화로 된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선조들의 행적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은가...

공자가 말하는 행복의 세가지 조건



沈伯綱
역사학박사 / 민족문화연구원장
대구교대 겸임교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반대 개념이다. 행복여부는 영혼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정신적 행복주의자가 있는가하면 물질적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물질적 행복주의자도 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생활에 만족과 희열을 느끼면서 하루 하루를 유쾌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다. 원시사회에서 행해졌던占卜이나 토LEM신앙도 따지고 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염원한다. 길어봐야 백년을 넘기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고 두 번의 기회조차 용인되지 않는 단 한 번 뿐인 인생이니, 한 번 뿐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동양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어디서 행복을 느꼈을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동양의 성자 공자로부터 들어 본다.

『논어』는 공자의 이론과 언어가 담긴 책으로 동양의 『성경』으로 일컬어진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서구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논어』를 읽지 않고는 동양을 이야기할 수 없다. 『논어』는 지난 수천년 동안 동양인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어』의 첫 귀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 된다.

“배우고 수시로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겠는가. 친구가 멀리서 찾아준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없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한때 국보를 자칭하며 천재로 이름을 떨쳤던 양주동선생이 “내가 어려서 『논어』를 읽을 때 첫 귀절을 보고 중학생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성인이라는 분이 겨우 이 정도 말 밖에 하지 못했다 하고 실망했었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해보니 과연 성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라고 실토한 적이 있다.

나도 사실 어려서 『논어』를 처음 읽을 때 이 귀절을 보면서 동양을 대표하는 성인 공자의 첫 마디 말, 동양을 대표하는 고전인 『논어』의 첫 귀절치고는 너무나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요즘 『논어』를 다시 보면서 여기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세가지 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공자가 말하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배우고 수시로 반복하여 학습하는” “學而時習” 즉 평생학습이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인생에서 학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한 두 군데 그치지 않지만 그가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했는가를 하는 것은 다음 귀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분발하여 학문을 추구하느라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즐거워서 온갖 시름을 다 잊어버린 나머지 늙어간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즐거움 중에 배우는 즐거움만한 것이 없다. 주색

잡기를 통해서 일시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至樂莫如讀書”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하나 하나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혀나갈 때 참다운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행복의 둘째 조건은 “친구가 멀리서 찾아 주는” “有朋自遠方來” 즉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가까운 데 절친한 친구들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구라파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구의 덴마크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좋은 친구가 많았으며 최소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한명쯤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士爲知己者死 女爲悅己者容이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단장을 한다” 『戰國策』에 나오는 이 말은 인생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知己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잘 설명해준다.

키케로는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라고 말했고 헤르만 헤세는 “사랑이나 지성보다도 더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우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부부기간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부부간 지기를 만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知己之友를 한 명쯤 두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조건이다.

공자가 말하는 행복의 셋째 조건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없는” “人不知而不慍” 즉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삶의 방식에 알맞게 조성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나의 삶이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풍성한 과일은 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가 있는 대신 다리가 들박에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다리가 넷인 짐승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자연의 원리와 섭리를 안다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학습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즐거움과 좋은 친구와 사귀는데서 오는 인생의 즐거움과 낙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 이 세 가지 열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논어』의 첫 귀절은 인생의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 있고 세상의 진리는 고상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데 있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 주고 있다.

공자가 여기서 말하는 열락의 세계는 학문을 연마하고 친구와 교류하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으로 말초심경을 자극해서 얻어지는 세속적인 쾌락과는 구별 된다.

공자의 말씀은 얼핏 보기에 평범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인생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참다운 지혜가 담겨 있다.

공자는 일생동안 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논어』의 첫 귀절이 인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생의 행복을 논하는 悅樂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인은 공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도달하고자한 궁극적인 최종목표는 열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강원감영문화제(江原監營文化祭) 거행



▲ 순력행사(일곱분의 선조와 관찰사의 깃발을 든 후손들)
 1. 심액(상열 판관공종회 회장) 5. 심평(원주)
 2. 심진현(삼규 대종회이사) 6. 심성희(봉섭 대종회이사)
 3. 심성진(재근 총무이사) 7. 심수(유섭)
 4. 심택현(준섭)

2011년 10월 1일(토) 강원도 원주에서 조선조 500년간에 부임하셨던 500여명의 관찰사의 후손들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고, 우리 문중에서도 대종회와 원주종회, 수은판관공과 첨정공종회 등에서도 다수가 참석하였다. 우리 후손들은 선현(先賢)님들의 높고 깊은 음덕을 헤아리고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하루가 되었다.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신 우리 선조는 일곱분으로 그 휘는 다음과 같다.

- 12세 심 액(沈 諡) : 판의금부사, 청송군(靑松君)
- 14세 심 평(沈 枰) : 예조참판
- 17세 심택현(沈宅賢) : 판의금부사
 - " 심성희(沈聖希) : 예조참판, 이조참판
 - " 심진현(沈晉賢) : 예조참판
- 18세 심성진(沈星鎭) : 공조판서, 한성부판윤
 - " 심 수(沈 鏞) : 이조판서

7세조 내자시판관공(휘: 潑) 재실 명덕재(明德齋) 준공식

2011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011년 10월 22일 7세조 내자시판관공(휘: 潑) 재실인 명덕재(明德齋) 준공식 고유제를 봉행한 후 150여명의 종인들이 모인 가운데 명덕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상렬회장님의 인사 및 경과보고와 상직 고문님의 축사에 이어, 건립기비(建立記碑)와 명덕재 현판 제막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웅장한 모습의 재실을 보면서 상직고문님과 상렬회장님의 노고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으며, 판관공 할아버님께서도 후손들의 효심에 기뻐하셨으리라.



▲명덕재 전경



▲명덕재 준공식 인사 (판관공회장 심상렬)



▲명덕재 현판 제막식 (오른쪽부터 안효공 상덕회장, 대종회 상하부회장, 판관공 상렬회장, 공숙공 응섭회장, 이경공 주택회장)

▶ 헌성금 내역

■ 상량식	
김포 첨정공(휘: 慣)종회	300,000원
仁輔(대종회 이사)	100,000원
신천공종손(김포)	50,000원
상직(내자시판관공 고문)	50,000원
■ 준공식	
대종회 화환 1점과	300,000원
안효공종회	700,000원
공숙공종회	2,000,000원
김포 첨정공종회	500,000원
효창공종회	300,000원

인수부윤공종회	200,000원
이경공종회	200,000원
신천공종회	100,000원
상직(내자시판관공 고문)	200,000원
안성종회장	100,000원
재서(대종회 재무/문화이사)	100,000원
우하(대종회 이사)	100,000원
봉섭(대종회 이사)	100,000원
건보(파주 광탄)	100,000원
창섭(인천)	100,000원
재훈(김포)	50,000원
응섭(인천)	50,000원
재춘(개봉동)	50,000원

문림랑 할아버님께

성묘를 다녀온 이후 불초 후손은 매우 행복하 마음이 되어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하여 시조할아버님과 합문지후공 할아버님, 그리고 인수부윤공 할아버님의 산소에 참배하고 난 후의 느낌입니다.

청송심씨곡성종회의 선조묘소순례단의 일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른 것은 2011년 8월 27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탄 저희 일행은 옥과를 출발하여 호남고속도로를 달려 한 시간 반 쯤 후에 남당산 산소에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와 본 종인들의 탄성과 함께 우리나라 8대 명당 중의 한 곳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묘소에 올라 저희는 간단한 제수로 성묘를 올렸는데 동곡 우경 명예 회장께서 미리 작성하신 축문을 읽은 종인이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하니 묘정에 서있는 저희는 낯익은 시큰했습니다. 유인물 자료에 의하여 남당산 산소에 얹힌 우여곡절에 대한 동곡 회장의 강의를 들은 저희는 선조님들의 충·효와 애족사상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할아버님의 청백한 삶이 엿보이는 그 분의 시(詩)는 저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버스를 달려 전북 완주군에 계시는 5세조 인수부윤공 할아버님의 묘소로 갔습니다. 91명 대가족이 산소에 합

께 성묘를 하였다. 이 산소에서 역시 할아버님의 행적소개를 들으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대둔산 유원지에서 점심식사를 한 저희는 석양에야 청송에 당도하였습니다

찬경루 정내에 도착한 저희 일행은 청송 유사이신 능광 대부님의 해설로 찬경루와 소헌공원에 대한 유래를 들었습니다. 황혼의 우람한 찬경루를 쳐다보며 인자하신 소헌왕후 모습을 상상 속에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상 손꼽히는 선군 세종대왕을 훌륭하게 내조하시고 수많은 자녀들을 나라의 동량으로 길러주신 성묘의 음덕을 이곳 청송의 소헌공원에서 만나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할아버님의 은혜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먼저 중대 산소를 참배하였는데, 할아버님! 중대산소 묘전에 석등이라도 하나쯤 있었으면... 했습니다. 만지송은 예사로운 수목이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 청송 집안의 상징역할을 면면히 해 나가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여 보광산 산소에 올랐습니다. 연전 성묘 때와 달리 등산로가 정비되어 차량이 산소에 근접할 수 있어서 연로한 종인들도 모두 묘정에 모였고 엄숙한 분위기로 고유제를 모셨는데, "때는 2011년(신묘) 8월 28일, 청송 심씨 25세손 곡성종회장 정식은 감히



▲곡성종회 회원들의 시조묘소 참배 후 다함께 묘소앞에서 사진촬영

고하나다.

시조 문림랑 위위시승 할아버님의 얼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천릿길을 달려와 묘전에 엎드려 명복을 비읍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와 과실을 차려드리오니 흥향 하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불초 저희들과 모든 후손들에게 면면히 흥복을 내려주소서." 라는 젊은 종인의 낭랑한 독축소리가 아름다운 보광산 송림 속에 메아리칠 때 우리 靑松家가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조님들께 감사하 올 따릅니다. 할아버님의 아름다운 산소를 뒤로하고 하산한 저희는 한나절 아름다운 주왕산을 관광하였는데 숲에 덮인 계곡을 따라 오르며 바라본 우람한 바위며 울창한 수목, 자연의 음악을 연주하며 흐르는 맑은 물이 마치 훌륭하신 우리 선조님들의 기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귀로에 경의재와 송소 고택에 들러 악은공 할아버님

과 송소 할아버님의 일화를 들으며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송의 두 분 유사 능광 대부와 완택 대부께서는 우리의 전 일정을 함께 하시며 열성적으로 안내해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기에 일가의 깊은 정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선조님들을 만나 뵈고 온 반가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늦게야 집에 도착했어도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노구의 종인들도 여러분 동행하셨으나 아무 탈 없이 잘 다녀 올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풀어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리며 펜을 놓습니다. 두 손 모아 우리 후손들은 할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8월 31일
 광주에서 24세손 준 섭 올림

宗 事 消 息

1 대종회 주관(5처묘소) 추향제

始祖 文林郎公 (휘:洪孚) 秋享奉行

10월 5일(음 9월 9일)



初獻: 相德(안효공종회장)
 亞獻: 相俊 玄根
 終獻: 世求 範燮
 執禮: 宜亮 大祝: 相直

中臺墓所 秋享奉行

10월 5일(음 9월 9일)



獻官: 相直(대종회 이사)

2世祖 閣門祇侯公 (휘:淵) 秋享奉行

10월 7일(음 9월 11일)



初獻: 相和(상임부회장)
 亞獻: 宜在 鍾赫
 終獻: 載龍 勇鎭
 執禮: 載玉 大祝: 相直

2世祖 奉翊大夫公 (휘:晟) 秋享奉行

10월 21일(음 9월 25일)



初獻: 상하(철원종회장)
 亞獻: 在根(대종회 총무이사)
 終獻: 相俊
 執禮: 용규

3世祖 靑華府院君 (휘:龍) 秋享奉行

10월 9일(음 9월 13일)



靑華府院君
 初獻: 相德(안효공종회장)
 亞獻: 光澤
 終獻: 載春
 執禮: 載玉 大祝: 相弘
 配位
 敏燮(도총제공회장)
 相華
 相昊

4世祖 靑城伯 (휘:德符) 秋享奉行

10월 11일(음 9월 15일)



靑城伯
 初獻: 晶求(인수부운공종회장)
 亞獻: 仁輔
 終獻: 康燮
 執禮: 載玉 大祝: 相直
 配位
 相和(상임부회장)
 元輔
 光燮

靑城伯 初配位 淸州宋氏 秋享奉行

10월 13일(음 9월 17일)



初獻: 相股(부회장)
 亞獻: 左輔
 終獻: 載鐵
 執禮: 相昊 大祝: 相直

5世祖 都摠制公 (휘:仁鳳) 秋享奉行

10월 13일(음 9월 17일)



初獻: 相和(상임부회장)
 亞獻: 相吾
 終獻: 在根
 執禮: 相昊 大祝: 相直

제 향 성 금 내 역

(대종회주관 5처 묘소 추향성금)

- 시조 제향성금
 - 안효공종회 1,000,000원
 - 심상준(청송교육청 교육장) 500,000원
 - 심덕보(청송경찰서장) 300,000원
 - 울산종회 200,000원
 - 도총제공종회 200,000원
 - 심범섭(대구) 200,000원
 - 충주종친 친목회 100,000원
 - 충남지구종회 100,000원
 - 심의택(대구) 100,000원
- 2世祖 함문지후공 제향성금
 - 안효공종회 300,000원
 - 내금위공과 울산종회 200,000원
 - 도총제공종회 100,000원
- 2世祖 봉익대부공 제향성금
 - 안효공종회 300,000원
 - 단천종회 250,000원
- 3世祖 청화부원군 제향성금
 - 안효공종회 300,000원
 - 도총제공종회 100,000원
- 4世祖 청성백 제향성금
 - 심정구 고문 300,000원
 - 안효공종회 300,000원
 - 완구부회장 100,000원
 - 도총제공종회 100,000원
 - 춘천종회 100,000원
 - 철원종회 100,000원
 - 신천공파 춘천종회 상문회장 100,000원
- 4世祖 청성백 배위(청주송씨) 제향성금
 - 안효공종회 300,000원
 - 도총제공종회 100,000원

★ 제향성금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이사 공개 채용

대종회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실 종인을 공개채용합니다

1. 채용대상: 성실하고 행정업무 경험자로 컴퓨터 워드 가능한 분
2. 채용인원: 1명 (50대 후반~60대 초반의 청송심씨 男)
3. 업무내용: 건물관리
4. 근 무: 월~금(오전6시~오후6시)
토(오전6시~오후3시)
5. 보 수: 협의결정
6. 기타
 - 1) 채용후에는 대종회이사로 임명후 관리이사로 위촉함
 -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통
 - 3) 제출기한: 2011년 12월 15일(토)
 - 4) 접 수 처: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5층)
전화: 02-2267-7857, 02-2263-7897
청송심씨대종회 총무이사

2011년 11월 30일

청 송 심 씨 대 종 회

2 각 파종회 주관 추향제

5세祖 仁壽府尹公 (휘:澄) 秋享奉行

10월 13일(음 9월 17일)



初獻: 晶求(인수부윤공종회장)
亞獻: 隆求 終獻: 彦付
執禮: 載求 大祝: 愚慶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만원 內禁衛公蔚山宗會 20만원
谷城宗會 10만원 愚喆(논산) 10만원

7세祖 參議公 (휘:潐) 秋享奉行

11월 5일(음 10월 10일)



初獻: 仁輔 <相振 인천종회장 헌잔>
亞獻: 연택
終獻: 相振(인천종회장)
執禮: 相弘

14세祖 晚沙公 (휘:之源) 秋享奉行

10월 21일(음 9월 25일)



初獻: 晶求(인수부윤공종회장)
亞獻: 晚求
終獻: 範求

執禮: 載求 大祝: 相華

▶ 獻誠金: 贊求 副會長 10만원

三韓 國大夫人 順興安氏 秋享奉行

10월 10일(음 9월 14일)



初獻: 晶求(인수부윤공종회장)
亞獻: 仁輔
終獻: 元輔
執禮: 載玉

7세祖 內資寺判官公 (휘:浚) 秋享奉行

10월 30일(음 10월 첫 일요일)



初獻: 相烈(판관공종회장)
亞獻: 雄燮(공숙공종회장)
終獻: 相厚
執禮: 昌燮 大祝: 良燮

14세祖 滄洲公 (휘:之漢) 秋享奉行

10월 16일(음 9월 20일)



初獻: 奎燮
亞獻: 榮燮
終獻: 愚成
執禮: 載求 大祝: 相華

6세祖 良惠公 (휘:石雋) 秋享奉行

10월 16일(음 9월 20일)



良惠公 配位
初獻: 晶求(인수부윤공종회장) 應輔
亞獻: 相大 洪燮
終獻: 相直 英輔
執禮: 載求 大祝: 相華

▶ 獻誠金

滄洲公 後孫 50만원 內禁衛公蔚山宗會 20만원
完求 顧問 10만원

8세祖 節度使公 (휘:安仁) 秋享奉行

10월 19일(음 9월 23일)



初獻: 鍾赫
亞獻: 求亨
終獻: 愚夏
執禮: 載求 大祝: 相華

19세祖 生員公 (휘:燁之) 秋享奉行

11월 5일(음 10월 10일)



獻官: 元輔(법곳종중 고문)
執禮: 載烈 大祝: 재현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秋享奉行

10월 17일(음 9월 21일)



主簿公 配位
初獻: 沈永澤(봉향회 회장) 沈雄燮
亞獻: 康鍾鎮 沈宇正
終獻: 李載晟
執禮: 沈載玉(안효공종회 총무이사) 大祝: 沈相直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만원 信川康氏門中 10만원
金堂山宗會 20만원 德水李氏門中 10만원
安城宗회 10만원 恭肅公宗中 5백만원

*2011년 10월 17일 현재 헌성금 누계: 59,550,000원

7세祖 忘世亭公 (휘:璿) 秋享奉行

10월 19일(음 9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初獻: 晶求(인수부윤공종회장) 完求(부회장)
亞獻: 相植 禹植
終獻: 洪燮 仁輔
執禮: 載求 大祝: 相華

▶ 獻誠金: 完求 顧問 10만원 贊求 副會長 10만원

9세祖 曉窓公 (휘:逢源) 秋享奉行

10월 27일(음 10월 1일)



初獻: 鎬元 亞獻: 榮澤 終獻: 承寬
執禮: 洪燮 大祝: 相華
• 10세祖 正字公(휘:鍵)
• 11세祖 一松公(휘:喜壽)
• 11세祖 僉正公(휘:昌壽) 동시 봉행

관향(貫鄉) 소식

자료제공 : 심남규(청송군청)

부산 청송회 지난 10.23일 본향 청송방문 행사 가져



▲부산 청송회 회원들이 시조묘소 참배 후 다함께 기념사진 촬영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우 가한 가운데 본향인 청송 방 리 종인들의 모임인 부산 청 문행사를 가져다. 송회(회장 심용식)는 지난 회원들은 이날 아침 일찍 10월 23일 회원 60여명이 참 관광버스 2대로 부산을 출

발하여 오전 11시경에 청송 배하고 잠시 준비한 떡과 과 에 도착 현지 거주 종인(宗 일 등 음식을 같이 나누 후 人)의 안내로 보광산 시조묘 방문일정을 마무리하고 부 소를 참배하고 청송읍내 푸 산으로 떠났다.
 이날 가을빛이 찬란한 풍 른솔한우식당에서 점심식사 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 를 마친 후 근처에 있는 소 처럼 본향을 방문한 회원들 현공원 내 천경루와 운봉관 은 오색단풍으로 곱게 물들 경내를 둘러본 후 우리 일가 어 가는 보광산과 중대산의 들이 모여 사는 세거지(世居 地)인 파천면 덕천마을의 경 청정한 맑은 공기로 늦가을 의재(景義齋)와 조선시대 만 정취를 만끽하는 한편, 유적 석꾼으로 유명한 청송 심부 지 탐방행사를 통해 선조들 자(沈富者) 아흔아홉칸 집 이 남김 훌륭한 업적과 발자 송소고택(松韶古宅) 등 마을 취를 새롭게 느끼고 회원상 주변을 두루 둘러보고 마지 호간 친목을 돈독히 다지는 막 탐방지인 청송읍 부곡리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한 소재 중대산 선대묘소를 참 결같이 입을 모았다.

심재선 종인 파프리카 수출 선도로 경북농협 대축전 농촌지도자 대상 수상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에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6농 서 청송수출채소영농조합법 가가 참여하는 청송수출채 인을 이끌어 가는 심재선(沈 인 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載銑 56세) 종인이 지난 11. 11. 3~11. 5 3일간 구미 박정희 첫해 28만달러의 파프리카 체육관에서 농업인 2만여명 를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매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 있는데 올해도 196톤, 84 「2011경북농업대축전」 행 만달러(한화 9억원 정도)를 사에서 농업인 최고의 영예 일본과 캐나다로 전량 수출 인 농촌지도자 대상을 수상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하였다. 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심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내고 있는 지역의 선도 농업

인이다. 수출 선도에 앞장서 왔다. 심씨는 “이렇게 큰상을 받 재배 초기 청송의 산간오 게 되어 기쁘지만 앞으로도 지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 선진농업을 위해 더욱 더 발 행작을 겪는 등 애로가 많 았지만 시설 환경개선과 재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기술 습득 등 각고의 노력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 혔다. 으로 파프리카를 지역 최고 의 고소득 작물로 성장시켜



▲파프리카 수확에 여념이 없는 심재선씨

공 시 사 앙

1. 임원(이사) 추천은 현재 적정수이므로 당분간 추천 을 받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원회비를 미납입 하신 임원께서는 12월중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보성금/임원회비 은행송금시는 내역과 市단위 까지 명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宗報원고를 많이 보내주신 종인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원고는 紙面상 이번호에 게재를 못할시 다음호에 게재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祝 賀

◆대중회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계신 부산종회 심 상균(대중회이사) 회장님의 장남(심효준)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일시 : 2011년 12월 4일 (일) 오후1시
 • 장소 : 호텔 리츠칼튼 서울 A 3F 그랜드 볼룸
 TEL : 02-3451-8000

◆장성진급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종회 18세조(휘: 鎰) 후손 재옥(載玉) 종인이 11월10일 해군장성 진 급을 축하합니다.

송 금 안 내

任員會費 · 贊助金 · 宗報贊助 · 인터 넷족보 수단금을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084-17-001831
 문의전화 : (02)2267-7857



청 송 (靑松)

불타는 꽃단풍을
 나만 보란 말이더냐
 덕천강 들주막에
 술을 빚는 주왕산아
 청송은
 먼 구름 휘어잡고
 굴러보고 싶다한다.

하 고

沈載完(大宗會 顧問) 박사께서 2011년 11월 15일 향년 93세로 별세하셨습니다.(대중회에서 조화 현성)

任 員 會 費

윤섭	50,000원	김포
덕섭	50,000원	김포
재근	50,000원	총무이사
철식	50,000원	완주
춘보	50,000원	합정동
준섭	50,000원	광주
화선	50,000원	예천읍

宗 報 誠 金

광섭	1,000,000원	일본총회장
희보	50,000원	시흥
상호	50,000원	영주
재경	100,000원	창원
용진	30,000원	김천
문수	50,000원	수원
두용	50,000원	도봉구
광섭	30,000원	동량면
유택	100,000원	충북
경종	50,000원	서울
원석	50,000원	충남
언춘	100,000원	수원
원길	50,000원	충남
윤섭	50,000원	김포
민오	100,000원	부산
사북시정공파종중	70,000원	
사북시정공파종중	300,000원	철원/서면상유.상부)
만섭	50,000원	강화
학강	100,000원	관악구
인자	50,000원	충남
리택	100,000원	능규종손 22세
동섭	30,000원	홍성
춘보	100,000원	마포
경섭	50,000원	부산진구
상균	100,000원	부산총회장
명규	100,000원	부산. 대림전기공업회장
혜령공종회	150,000원	
상의	50,000원	김포
일	100,000원	부산 밀성기업 대표
도총제공종회	200,000원	

★ 회비 및 종보성금에 감사드립니다.

5처묘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 화 번 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光	010-9236-2331
			琬澤	010-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正秀	010-8311-6429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 성 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